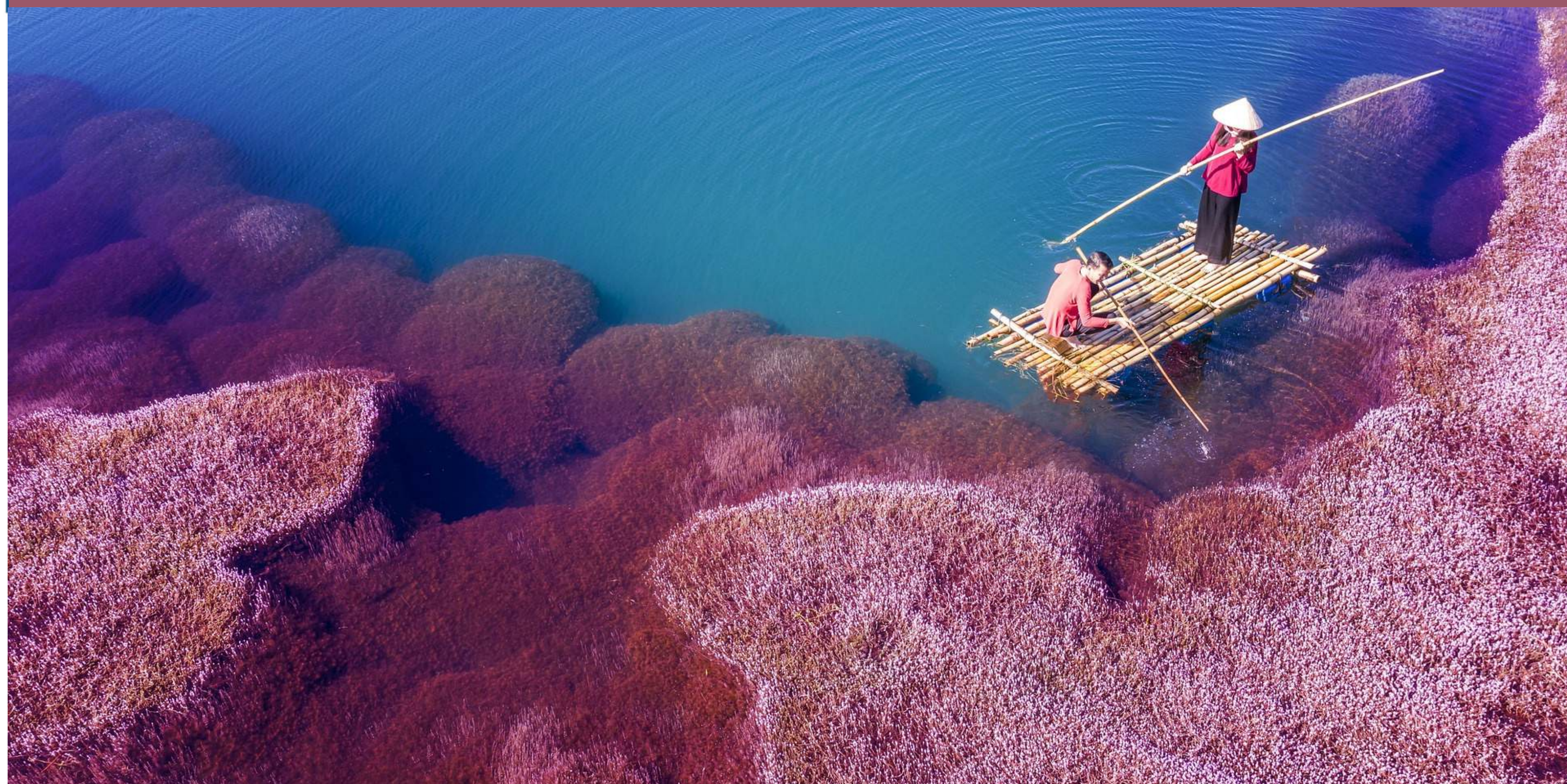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6월

발행일 : 2026년 5월 29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해외시장뉴스 · 프로젝트 동향	2
미국 통상정책 주요 동향 관련 해외시장뉴스	10
[팀코리아협의체 동정] 제조 AI 전환·K소비재로 베트남 공략...산업부·코트라 지원행사..	11
[기업탐방] 하나마이크론.....정원석 법인장	12
[법률] 베트남의 청산 및 진행시 주요 이슈 검토.....전현우 변호사	15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27탄.....엄진용 회계사	17
[통관] 집중형 통관체계에 따른 수출입 통관절차.....이여람 관세사	20
[이달의 유망성 투자 정보] 푸토성.....	23
[이달의 보고서] Business In Korea 2026.....	36
[이달의 보고서] 한눈에 보는 바이오헬스 스위스 진출 가이드 A-Z.....	36
[이달의 전시회] 2026 베트남 호치민 홈 & 하드웨어 전시회	37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8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3



편집 및 제작: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 센터

Phone: +84-24-3946-0511 / Email: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 KOTRA>



베트남 반도체 국가전략 본격화...북부와 남부, 두 클러스터의 역할

- 설계·후공정·인재로 압축된 전략, 베트남은 무엇을 먼저 키우나
- 생산은 북부, 설계·R&D는 남부 ... 기능으로 나뉘는 두 클러스터

AI 확산이 불러낸 반도체 경쟁, 그렇다면 베트남은?

최근 챗GPT(ChatGPT)와 클로드(Claude)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스마트폰 및 PC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반도체는 AI 산업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연산 인프라를 요구하며, 온디바이스 AI는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변곡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IT 부품 영역을 넘어 국가와 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의 초점 또한 CPU나 GPU 같은 개별 칩의 성능을 넘어,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 그리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 설계 및 검증 역량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미세공정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선풍 축소만으로는 성능 개선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설계와 패키징 역량이 입지 선정의 결정적 지표가 되었고, 2018년부터 글로벌 전자산업의 생산 거점으로 부상한 베트남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에서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해 전 세계의 전략적 투자 판단이 집중되고 있다.

베트남의 반도체 국가 전략 ... 단계적 내재화의 설계

베트남 정부가 2024년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2030, 비전 2050(Decision 1018/QD-TTg)'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 골자는 설계 기업 육성, 후공정(Packaging & Test) 역량 강화, 전문 인재 양성, 그리고 전략 기술 지원 체계의 정비를 병행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베트남이 단기간 내에 천문학적인 자본과 고도의 기술 인프라가 요구되는 전공정(Fab)을 확보하려 하기보다, 현재 베트남이 보유한 산업적 기반과 강점에 맞춰 필요한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 구조상 설계(Design)는 기획 역량이 중요하고 후공정은 정밀 제조와 검증 역량이 핵심인데, 베트남은 신규 진입국으로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정 대신 설계와 후공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산업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먼저 다지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전자산업 품목 수출입 동향(2022~2024)

베트남의 이러한 반도체 전략은 이미 견고하게 구축된 기존 전자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베트남 관세총국(GDC)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전체 상품 수출액은 약 4,055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컴퓨터·전자제품·예비부품 및 구성요소' 품목군의 수출은 2022년 약 555억 달러, 2023년 약

573억 달러에서 2024년 약 725억 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수입액이 2024년 기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베트남의 전자산업이 이미 글로벌 조달망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재와 핵심 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반도체 전략 제1조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GVC)의 거점 도약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것은 이러한 저부가가치 조립 중심 구조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단계별 로드맵 (2024~2050)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2030, 비전 2050'의 실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3단계 실행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다. 1단계인 2024년부터 2030년까지는 선택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후공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며, 특히 산업의 토대가 될 5만 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어지는 2단계(2030~2040년)에는 설계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제조 및 후공정 시설의 전국적인 확대를 도모하며, 전문 인력을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하여 산업의 규모를 키울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2040년부터 2050년까지는 연구개발(R&D) 자립을 완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베트남이 자국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여준다.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 C=SET+1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발전 경로는 'C=SET+1'이라는 독창적인 공식으로 압축된다. 이는 범용 칩 시장의 출혈 경쟁에 즉각 뛰어들기보다는 AI, IoT, 산업 자동화 등 급성장하는 특화 반도체(Specialized)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기존의 강점인 전자산업 및 디지털 전환(Electronics) 인프라와 동반 성장하며, 설계 및 후공정 분야의 전문 인재(Talent)를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베트남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새롭고 안전한 거점(+1, China Plus One)으로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4년 반도체 및 AI 분야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초기 투자비 지원 방안(Decree 182)을 마련하였고, 2025년 우수 인재 양성센터 구축 승인 및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했다. 특히 2026년 1월 발효된 디지털 기술산업법(Law 71)은 반도체 산업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법적으로 보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른 역할의 두 클러스터, 그리고 남부의 부상

현재 베트남 반도체 산업은 북부와 남부가 명확히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며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북부 클러스터는 기존의 전자 제조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반도체 기판 및 후공정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삼성전기가 2026년 4월 AI 서버용 FC-BGA 생산을 위해 12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앰코 테크놀로지가 누적 16억 달러 규모의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산 연계형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반면 남부의 호치민시와 사이공하이테크파크(SHTP)는 조립 및 테스트 기능을 넘어 설계와 R&D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인텔이 누적 15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ATM 시설을 운영 중인 가운데, 마벨 테크놀로지가 베트남을 글로벌 3대 R&D 허브로 지정하고 현지 엔지니어를 500명 이상 확보하는 등 설계 역량의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부는 SHTP를 중심으로 지멘스 EDA, 시놉시스 등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최대 관문항인 까이몹-티바이 항만 등 최적의 물류 조건과 호치민 국립대의 풍부한 인력 풀을 바탕으로 단순 생산기지를 넘어선 고부가가치 거점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사점 — 남부 설계·ATM 생태계와의 협력 확대 모색해야

종합적으로 볼 때 베트남은 아직 첨단 전공정(Fab) 중심 국가는 아니지만, AI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포착하여 가치사슬 내 입지를 무섭게 확장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로드맵과 제도 정비, 그리고 북부와 남부의 전략적 기능 분화는 베트남이 단순한 '플랜 B'를 넘어 반도체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 기업들은 특히 남부의 설계 및 ATM 생태계에 주목하여 단순 제조 협력을 넘어선 공동 R&D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고도화된 협력 모델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현지 소재 및 장비 기업이 20개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은 우리 기업의 풍부한 양산 경험과 공정 자동화 역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인력 공급의 실질적인 격차와 정책 실행의 시차 등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베트남을 단기적 허브로 평가하기보다는 성장 초기 단계의 전략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사슬 편입을 도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음악 예능 기반 공연 소비 확대... 음악 관광·금융 결합으로 산업 확장

- 대형 공연 수요 증가 속 음악 관광 확산으로 연관 소비 동반 성장
- 금융권 참여 확대·현지 아티스트 부상으로 IP(지식재산) 기반 수익화 구조 강화

음악 예능 기반 공연 수요 확대

베트남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최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공연 및 음악 콘텐츠 소비가 급격히 팽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베트남 최초의 온라인 티켓팅 플랫폼인 티켓박스(Ticketbox)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당 플랫폼을 통한 음악 축제 및 콘서트 티켓 판매량은 이미 100만 장을 돌파했으며, 전국적으로 개최된 음악 행사만 800개를 상회한다. 특히 베트남의 유명 남자 가수와 아이돌이 팀을 이뤄 경쟁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Anh Trai "Say Hi"'는 회당 5만 명에서 최대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형 공연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은 온라인에서도 확인되는데, 관련 콘텐츠의 틱톡 해시태그 조회수가 무려 54억 회를 기록하며 온·오프라인의 경계 없는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아울러 현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Yeah1그룹의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약 1조 6,530억 동(약 6,350만 달러)을 기록한 점은, 무형의 콘텐츠 소비가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연 중심 '음악 관광' 확산 및 연관 산업 확장

최근 베트남 소비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공연 관람을 목적으로 지역 간을 이동하는 '음악 관광(Music Tourism)'의 확산이다. 과거에는 하노이나 호치민 등 대도시 거주자들이 인근 공연을 관람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공연 자체가 여행의 주된 목적이 되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주축으로 선호 아티스트의 공연 일정에 맞춰 항공권과 숙박을 함께 예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공연 시장의 대형화와 맞물려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관객들이 현장 경험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함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단순 티켓 판매 수익을 넘어 항공, 숙박, 지역 관광 소비를 수반하는 복합 구조로 확장되었고, 이는 개최 지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 기획사와 관광업계의 협업도 활발해져 다낭, 달랏, 푸꾸옥 등 주요 관광 거점 도시들이 공연 개최지로 각광받으며 지역 관광 요소와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 뮤직 페스티벌인 '8 Wonder'는 대형 리조트 기업 빈펄(Vinpearl)과 협업하여 공연 관람에 숙박과 테마파크 이용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공연의 등급별 혜택을 서술형으로 분석해보면, 기본 등급에서도 라이트스틱과 식음료, 빈컴 쇼핑 바우처 및 빈펄 골프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등급이 올라갈수록 우선 체크인 서비스와 굿즈가 추가된다. 특히 VIP 등급의 경우 5성급 호텔 숙박권이 포함되어 있어 공연과 휴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또한 빈패스트(VinFast)를 활용한 교통 지원이나 승마,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자체 상권과 협력하는 등 지역 경제와의 접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뱅크테인먼트’ 부상...금융권 참여 확대

엔터테인먼트 소비의 확대는 금융권의 마케팅 전략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이른바 ‘뱅크테인먼트 (Banktainment)’의 부상을 가져왔다. 베트남 주요 은행들은 젊은 고객층 확보를 위해 대형 음악 예능 및 콘서트의 스폰서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VIB와 테크콤뱅크(Techcombank)는 각각 'Anh Trai "Say Hi"'와 'Anh Trai Vuot Ngan Chong Gai'의 후원사로 활동하며 자사 계좌나 카드 보유 고객에게 선예매 권한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신규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TPBank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데, 여성판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Em Xinh "Say Hi"'와 연계하여 자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인 LiveBank와 모바일 앱을 투표 및 예매 시스템과 통합 운영했다. 그 결과 앱 다운로드 수가 평소 대비 200% 이상 증가하며 하루 12만 건에 달했고, 앱을 통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량 또한 3배나 급증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금융 서비스의 강력한 영업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현지 아티스트 영향력 확대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시청률을 넘어 현지 아티스트 중심의 공연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5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Anh Trai Say Hi' 콘서트는 5만 명 규모의 관객을 집결시켰으며, 유사 포맷인 'Anh Trai Vuot Ngan Chong Gai' 콘서트는 예매 시작 40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고 플랫폼 접속자가 15만 명에 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또한 시즌 2 출신 아티스트인 Buitruonglinh이 2026년 호치민 공연에서 티켓 오픈 12분 만에 매진을 기록한 사례는 베트남 현지 아티스트만으로도 충분한 티켓 파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데,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MZ세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통 의상인 ‘아오 응우 탄(Ao Ngu Than)’이나 ‘아오 넷 빈(Ao Nhat Binh)’을 입고 전통 악기 연주와 역사적 서사를 현대적인 팝 사운드와 결합한 공연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사점

베트남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음악 예능을 기폭제로 삼아 단순 시청 중심에서 공연 및 콘텐츠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특히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강력한 팬덤은 오프라인에서의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현지 마케팅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의 젊은 소비자들은 공연 관람을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참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격 저항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콘서트 1회당 최대 약 1,000만 동 (약 380달러)까지 지출할 의향이 있는 고관여 소비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지출이 월 전체 소비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음악 관광, 금융권 스폰서십, 항공 및 숙박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단순한 광고 수단이 아닌, 연관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마케팅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베트남 유아교육 시장, AI·영어·STEM 중심으로 재편

- 보편 유아교육 대상 만 3~5세로 확대
- 하노이·호치민 중심 프리미엄·이중언어 유치원 수요 확대
- 디지털 교육 의무화 흐름 속 스마트교실 등 에듀테크 진출 기회 부상

베트남 유아교육 시장이 정책 변화와 도시 중산층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정부는 유아 단계부터 AI·디지털 교육을 도입하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 개정 교육법으로 보편 유아교육 대상이 만 3~5세 전체로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공립 중심 구조 속 프리미엄 수요는 사립·외국계 시장에 집중

유아교육기관 수는 2020~2021학년도 15,491개에서 2024~2025학년도 15,077개로 소폭 감소한 반면, 등록원생 수는 같은 기간 약 501만 명에서 약 47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약 79~80%를 차지하는 구조는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으나, 사립 비중은 약 20% 수준에서 미세하게 축소(21.5% → 20.5%)되는 추세를 보인다. 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국제 커리큘럼과 이중언어 교육을 앞세운 사립·외국계 유치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하노이(2,685개)와 호치민(5,069개)이 핵심 진출 지역으로 평가된다.

도시 중산층 확대에 따라 사립유치원 선호 증가

하노이와 호치민의 젊은 부모들은 단순 보육을 넘어 영어 몰입, 몬테소리, 레지오 에밀리아, STEM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부모 대상 조사(2025년, 1,500명)에 따르면 82%는 구조화 교육과 자연 발달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중시하며, 학업 성취 중심을 선호하는 비율은 18%에 그친다. 이에 따라 사립 유아교육 시장은 대형 현지 교육그룹(Vinschool, EQuest 등), 외국계 프리미엄 유치원(Maple Bear, Nord Anglia 등), 소규모 개인 운영 유치원으로 계층화되고 있다.

영어 조기교육, 사립 중심에서 공립 영역으로 확산

조기 영어교육이 사립 유치원과 국제학교를 넘어 공립 유치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호치민시는 2026~2027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에 영어 통합 콘텐츠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ILA, Apollo English, British Council 등 주요 영어교육 기관도 만 2.5세 이상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이 취학 전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교육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AI 교육은 초기 단계이나 정책 지원으로 성장 가능성 확대

베트남 유아 에듀테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관련 기업은 39개사이며 투자 유치 성공 기업은 6개사에 불과하나, 2026년 4월 발효된 교육부 시행규칙(Circular No.28)이 유치원 교사에게 디지털 역량을 요구함에 따라 디지털 학습 도구·운영관리 플랫폼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AI 기반 영어학습 앱(Monkey Junior, KidsUP 등)과 유치원 운영관리 솔루션(LittleLives, iPro 등)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STEM 교육, 유아교육 차별화 요소로 부상

교육훈련부가 2023년 유아 대상 STEM 통합 활동을 공식 허용한 이후 로봇·코딩 중심의 민간 교육기업(TEKY, KIRO Vietnam, STEAMZone 등)이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순 교구 판매보다 커리큘럼·교사 연수·수업 운영 모델을 통합한 솔루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베트남 유아교육 시장은 보편 유아교육 확대, 조기 영어교육 확산, AI·디지털 교육 강화 흐름이 동시에 작용하며 구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AI 기반 학습 앱, STEM 교육 패키지, 스마트교실 인프라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으나, 단독 진출보다는 현지 교육그룹과의 합작·운영 제휴·콘텐츠 공급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진출은 하노이·호치민 도심 및 부유층 밀집 지역에 집중한 뒤, 브랜드 신뢰도 확보 후 다낭·하이퐁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Ninh Binh LNG Power Plant

Project Title	Ninh Binh LNG Power Plant		
Host of Project	Ninh Binh People’s Committee		
Project Duration	2026-2029	Total Cost [USD]	280 million
Location of the Project	Kim Dong, Ninh Binh province, Vietnam		
Funding Source	Investor’s budget and Loan		
Ordering Method	ICB		
Type of bid	Investor selection (√) / F/S () / PMC () / Basic Design () / Detail Engineering () / FEED () / Procurement (√)/ EPC (√) / Construction (√) / Construction supervision (√) / Commissioning () / O&M (√) / Others(description)		
Bid Deadline	Q4/2026	Bidder Selection Method	To be decided
Project Profile (Background and Summary of the Project)	Main information: • Capacity: 300MW • Total area: 49.413 ha • Power Plant: 8,065 ha • Transmission line corridor (16km in length): 31.35 ha • Fuel terminal area: 9.9 ha Tentative Progress: • Q2/2025: Pre F/S • 12/2025: Investment policy approval • Q4/2026: Bidding for investor selection • Q1/2027-Q2/2027: Bidding for EPC contractor and Construction • Q4/2028: COD (50% capacity) • 2029: COD (100% capacity)		
Possibility of the Korean Company to Enter the Tender	Korean partners already have good reputation in the field of LNG so there would be high chance for Korean contactors in EPC/construction/procurement packages.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13)] 美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 동향과 시사점

- ◆ 트럼프 정부,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추진
- ◆ 석탄·천연가스(LNG)·석유·전력망 인프라 등 5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지정
- ◆ 에너지부에 구매 및 장기구매계약, 금융 지원, 생산능력 확충 등 관련 집행 권한 부여

[주요내용]: 다운로드 [\(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14)] 美 하원 반도체 수출통제 입법 패키지 의결 동향 및 주요 내용

- ◆ 美 하원 외교위원회, 반도체·AI 수출통제 법안 20여 건 초당적 일괄 의결
- ◆ 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 방향을 선제 견제하려는 의회의 강경 신호로 해석
- ◆ 본회의 독립 표결보다 국방수권법안(NDAA)·조정법안 등 필수 입법 패키지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

[주요내용]: 다운로드 [\(클릭\)](#)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 ◆ 국제무역법원(CIT),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 위법 판결
- ◆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수입업자 구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행정부는 조사 중인 301조 관세로 대체 적용하는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 확대

[주요내용]: 다운로드 [\(클릭\)](#)

제조 AI 전환·K소비재로 베트남 공략... 산업부·코트라 지원행사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M.AX 이노베이션 데이' 현장 상담회>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M.AX(제조 AI 전환) 이노베이션 데이 및 K-소비재 쇼케이스·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에서 수요가 커지는 M.AX와 소비재 분야를 필두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 기술기업 11개 사, 유통망·소비재 기업 54개 사가 함께했다. AI 기업들은 베트남 기술 기업, 바이어, 벤처캐피탈 등 30여개사와 수출 상담을 하고 투자 유치 피칭을 진행했다. 소비재 행사에서는 뷰티, 식품, 생활용품 분야 50개사 제품을 전시하고 AI 분석기술을 접목한 라이브커머스 등 체험형 마케팅을 선보였다.

지난해 기준 한국·베트남의 교역액은 945억달러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베트남을 '최대 전략 파트너 시장'으로 설명하며 "AI·로봇 등 첨단산업 협력 수요가 커지고, K-소비재 호감도도 높은 만큼 이 둘을 앞세워 산업과 기술, 문화를 접목한 마케팅, 경험 흐름을 기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장보인 기자

베트남 팀코리아협의회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 거점, 하나마이크론

정원석 법인장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박닌성 옌푹 (Yen Phong) 산업단지와 번쥬(Van Trung) 산업 단지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를 대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모듈 제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Turn-Key로 공급하는 생산 거점으로, 베트남 반도체 공급망 확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베트남 북부 박장(Bac Giang)성 번쥬 (Van Trung) 단지에 법인을 설립했고, 2023년 공장 완공과 함께 메모리 고성능 반도체용 후공정 솔루션을 본격 제공하기 시작하여 연 매출 50%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석 법인장]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2026년 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시장 흐름에 맞춘 공격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특히 DRAM·NAND 제품의 Packaging & Test, MemoryModule & SSD, System Package에 이르는 폭넓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반도체 후공정(OSAT)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는 북부 최초의 대규모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모듈 생산 기지로 공식 평가받은 바 있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동남아 반도체 허브로도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베트남 법인 전경 사진]

주요 사업 및 베트남 지사의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고품질 생산 경쟁력을 기반으로 베트남 반도체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술과 생산 자동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 면에서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과 스마트팩토리 운영을 지속 확대하며 공정 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글로벌 고객사의 엄격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불량분석, 신뢰성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표준 기반의 품질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 및 고객지원 면에서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공급 대응과 기술 협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 거점을 활용한 빠른 대응력과 가격 경쟁력은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고객사의 생산 다변화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베트남 법인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설비 도입, 에너지 절감 활동, 안전 중심 사업장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지역 대학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기에는 맨땅에서 공장을 짓고 장비 통관과 설치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과 행정 처리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와 직접 연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종합 지원팀과 긴밀히 협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낸 덕분에 초기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완공 이후 법인이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반도체 전문 인력의 현지화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노동시장에는 반도체 공정 경험을 가진 인력 풀(Pool) 자체가 부재했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도 반도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실무에 투입하기까지 트레이닝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교육 훈련 비용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마이크론이 도입한 것이 바로 '투 트랙(Two-Track) 인재 육성 전략'입니다. 먼저 현지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세미콘 클래스(Semicon Class)'를 개설해 입사 전 단계부터 반도체 맞춤형 전문 인재를 선제적으로 육성했습니다. 동시에 법인 내 자체 트레이닝 센터(Training Center)를 구축해 현지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실무 역량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현지화 운영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Semicon Class 교육]



[하나마이크론 Training Center]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근 베트남의 FDI 유치 전략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선택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Slim화·Simple화·Speed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디지털 환경 구축, 국민들의 빠른 의식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규로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충분한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처럼 원가 경쟁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면 곧바로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진출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 간 정책 시행령과 행정절차에 차이가 있고, 한때 베트남 진출의 매력으로 꼽혔던 풍부한 젊은 노동력도 이제는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이라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현지 법규와 사회 변화 트렌드에 맞는 현지화 전략,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최신 상황에 맞는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운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베트남의 청산 및 진행시 주요 이슈 검토

1. 들어가며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중국에서의 경험과 같이 베트남에서 투자를 정리하시는 경우, 그 절차가 매우 어렵고 지난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베트남 투자를 종료하고 회사를 청산하시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베트남에서의 청산

청산은 투자자가 법인을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하기에, 청산절차가 내국 법인과 달리 투자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청산절차와 기업법에 따른 기업 청산절차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투자 허가서 반납 후 사업자 등록증 반납절차로 나뉘는데, 사실 청산절차에서의 핵심은 이러한 반납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정리작업입니다. 즉,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정리, 미수채권이 없어야 할 것이며, 현존하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과의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가 필요하며,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등이 모두 완성되어야 합니다.



영업활동이 거의 없었던 법인이라면 이러한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하던 법인이라면 이러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재 혹은 청산 과정 중 이해관계인들의 반대의사가 있다면,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러한 청산절차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앞서 채권·채무의 정리 및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근로계약 해지 방안 등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나면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세무 완납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점입니다. 세무 완납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세무서 및 세관 등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청산 전 세무 감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 세무 감사가 되므로 가장 정밀한 세무 감사가 진행되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무 감사가 완료되면 투자 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반환이 진행될 수 있고, 세무 코드 폐쇄, 인감 반납 등의 절차를 진행 후 잔여 재산의 투자자로의 송금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6



투자의 종착역과 워런 버핏이 증명한 시간의 힘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진용 회계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베트남 회계 기준(VAS)에 따른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기’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투자를 왜 하는 것인가?

지난 호에서는 ‘3. 내 인생에 있어서의 현금흐름’이라는 이름으로 인생 주기 전반에 걸친 현금흐름의 +흐름(즉, 흑자)과 -흐름(즉, 적자)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생에서 흑자 시기를 보내고 있는 30~50대를 기준으로(사실 투자도 가장 많이 그리고 크게 하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하지요) 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경영계에서 최대의 화두는 ‘지속가능경영’입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 함은 평균적인 기업의 존속 기간인 약 30여 년을 뛰어넘어 보다 오랜 기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을 하려면 꾸준한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한 내·외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무척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면, 각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장 손쉬운 대답은 아마도 갖고 있는 자산을 더욱 불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을 더욱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일 겁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살기 위함이라는 대답이 뒤따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대답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바로 투자의 결과물이 언제 만들어지면 가장 좋을까? 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각 투자의 완성 시기에 관한 것인데요. 투자는 투자의 목적에 따라 투자 대상과 투자 금액 그리고 목표 수익률 등이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각 투자 대상이나 적절한 금액 수준 그리고 각자 목표하는 수익률 등에 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는 각 개인의 재무 상황과 여건 그리고 투자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한 고민 없이 그냥 많이 벌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맹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5. 투자의 목적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운 투자 시장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한 개별 종목 투자부터 각종 펀드나 ETF, 퇴직연금 등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은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까지 활발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오랜 기간 한국인들의 가슴속에는 꽤나 중요한 투자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가만히 과거의 투자 경험을 잘 복기해보시면 아마 한 가지 이상하고 의심스런 점을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히 뭔가 투자를 해서 벌기는 벌었는데 왜 매번 돈이 없지? 또는 이 투자를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의 종착점 즉, 투자가 끝나는 완성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이 뜻은 당장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한참 후인 20년 뒤에 지금의 투자로 말미암아 반드시 꼭 준비되고 내 손에 있어야 할 투자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지 않았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주식 투자의 예를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만약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핫한 삼성전자 주식을 1백만 원 어치를 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운이 좋게도 1.2백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 과연 추가적인 투자(추격 매수)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유지(방관)를 할 것인지 또는 심지어 벌어들인 투자 차익 0.2백만 원을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추가적인 투자 내지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한다면 전량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빠지는 타이밍에 다시 주식 매입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투자 방식이 과연 내가 1년 뒤 또는 심지어 이보다 더 한참 뒤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주는지입니다.

각 개인은 싱글로서 혼자 개인의 삶을 즐기면서 살든지 아니면 일정 시점에 가족을 꾸려서 살든지 그 어떠한 삶의 방식과 상관없이 특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지출을 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지출은 생활비로서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도 있을 테고, 커다란 목돈으로서 지출되는 또 다른 성격의 지출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 그 시점에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응당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점도 있고요.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과정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전 준비나 계획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6. 기대 수익률은?

독자 여러분들은 각자의 투자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면 만족을 하십니까? 물론, 투자 종목이나 투자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지만, 혹시 목표하고 있는 기대 수익률이 있으십니까?



투자 업계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의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칭송을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오랜 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1930년생으로 올해 96세인 워런 버핏이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면서 그가 어떠한 종목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만 기사에서 확인이 가능할 뿐, 그가 엄청난 투자 성과를 올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재 2026년이므로 96세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나 원문 존중을 위해 95세 유지도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워런 버핏이 현재 보유한 총 자산의 90% 가까이는 그가 50세가 된 시점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아울러, 그가 처음 투자를 시작하였던 시점은 10대부터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그가 일평생 투자를 하며 일구어낸 평균 수익률은 대략 15~20%라고 합니다. 물론, 평균 수익률 수준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별 거 아니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외로운 수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투자는 최대한 이른 시점부터 (반드시 꼭 어린 나이부터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작하고 그 투자가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엄청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것인데요. 보통 투자나 재무학에서는 교과서와 같은 표현으로서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No Risk, High Return을 당장 실현시켜 드릴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달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용돈 내지 생활비를 지출한다면 여기서 바로 10%만 줄이고 이 남은 10%를 매달 꾸준히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일단 당장의 수익률 10%를 안고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이후 투자 성과가 잘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최소 10% 이상은 되겠지요. 내가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남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당장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률은 어떨습니까?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투자는 바로 절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다음 호에서도 이번 호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읽기 시리즈 다시 보기]

- VAS 실전 가이드 ① (22탄): 베트남 재무제표의 기초와 VAS의 특징 (1월호)
- VAS 실전 가이드 ② (23탄): 재무제표의 3요소: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 (2월호)
- VAS 실전 가이드 ③ (24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전망과 베트남 사례 (3월호)
- VAS 실전 가이드 ④ (25탄): 재무제표 이해의 필요성과 현금흐름의 기초 (4월호)
- VAS 실전 가이드 ⑤ (26탄): 흑자부도의 경고와 인생의 현금흐름 (5월호)

집중형 통관체계에 따른 수출입 통관절차

베트남 세관총국은 2026년 5월 6일 결정문 702/QĐ-CHQ를 통해 '제3지역 세관국(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 III) 내 집중통관 모델에 따른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를 공표하였습니다. 동 결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통관 절차의 중앙집중화·디지털화를 통해 통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위험관리 기반 세관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정부의 행정개혁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기존 분산형 통관체계에서 벗어나 특정 통관부서를 중심으로 심사·처리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 처리속도 향상, 심사기준 표준화, 위험관리 강화 및 세관행정 효율화 등이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타 지역 세관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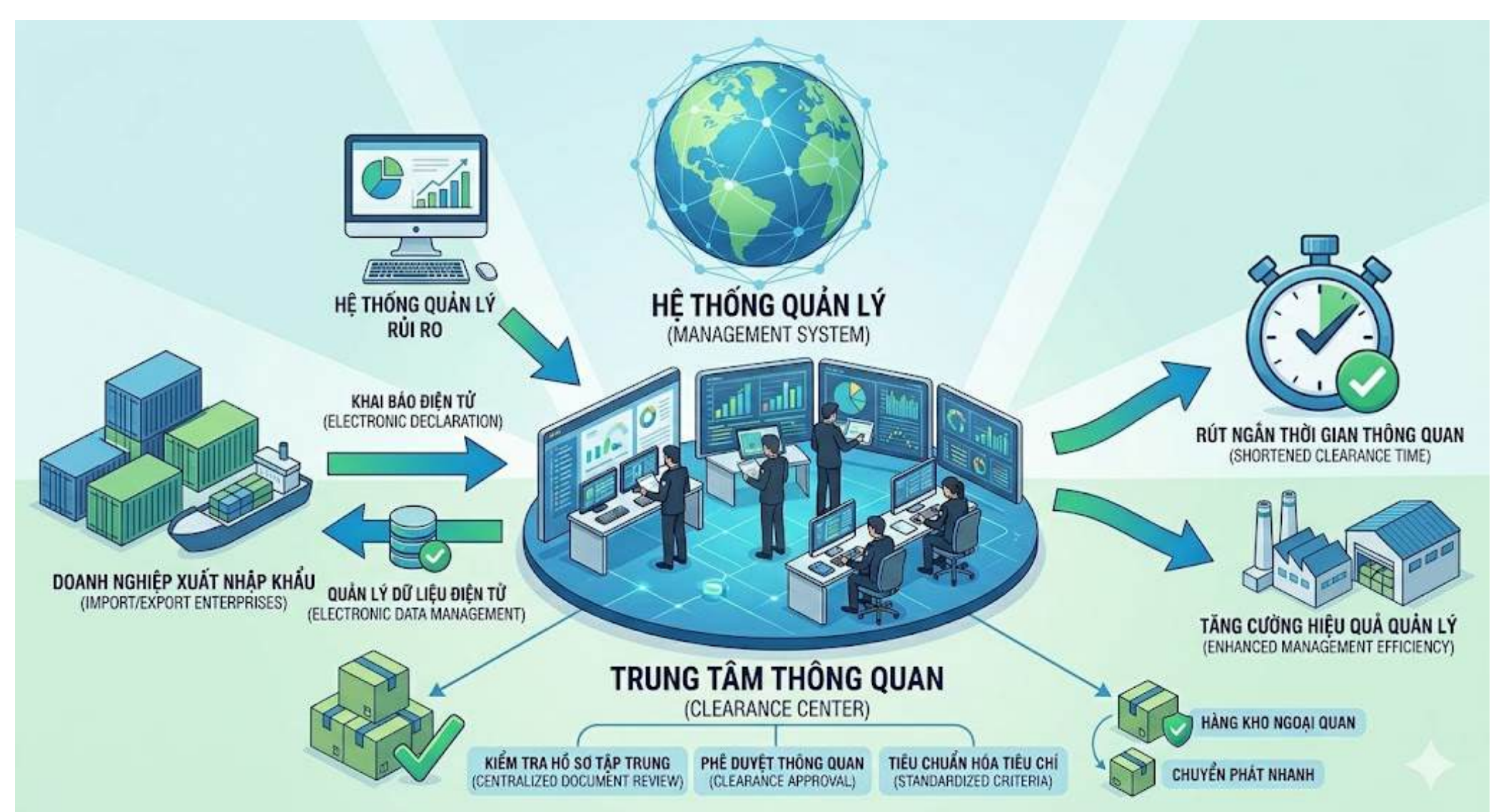
1. 주요 통관 절차 운영 방식

결정 702/QĐ-CHQ의 제2부는 수출입 상품에 대한 세관 절차 수행 방식과 각 부서의 업무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통관 모델 하에서 신고 접수, 서류검토, 검사 지시, 통관 승인 등의 절차를 전산 기반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출입 기업은 전자세관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며, 세관당국은 신고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분석 및 검사대상 여부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후 통관전담 부서가 신고자료 검토, 추가자료 요청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동 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자 데이터 기반 신고·처리 확대
- 위험관리 기반 검사체계 운영
- 기업 준수이력 및 세관 데이터 연계 활용
- 통관업무 집중처리를 통한 심사기준 표준화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처리시간 단축 추진



집중통관 모델 운영 체계 개요도

집중통관 체계에서는 특정 지역 세관국 산하 통관전담 조직이 다수의 신고 건을 통합 처리하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통일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일부 특수화물의 경우 일반 집중통관 절차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보세창고 반입화물, 특송화물, 우편물, 국경지역 관리화물 등은 기존 전문 세관부서 또는 국경세관에서 별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① 집중통관 모델 도입

동 결정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의 통관업무는 제3지역 세관국 산하 통관전담 부서(Đội Thông quan)를 중심으로 수행됩니다. 기존에는 각 세관지점별로 처리되던 일부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과 처리 효율을 높이 고자 하였습니다. 세관당국은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위험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검토와 행정 비효율을 축소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위험관리 기반 통관 강화

결정문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화물을 동일하게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준수이력, 품목 특성, 거래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검사 여부 및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 준수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반대로 원산지 위반, 저가신고, HS코드 오분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부가 원산지 검증 및 무역구제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관 리스크 분석 시스템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③ 전자 시스템 활용 확대

동 결정은 세관절차 수행 과정에서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정보, 검사결과, 통관이력 등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종이서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국가 단일창구 (NSW) 및 ASEAN Single Window 체계와의 연동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산기반 관리 확대는 기업 입장에서 통관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신고정보의 정확성 및 데이터 일관성 관리의 중요 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유의사항

① 신고 정확성 관리 필요

전자 시스템 기반 통관이 확대될수록 HS코드, 원산지, 과세가격, 품목명 등 신고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해집니다. 단순 입력 오류나 정보 불일치도 리스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② 원산지 및 가격자료 사전 점검 필요

세관당국은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심사 및 위험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검토와 행정 비효율을 축소하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FTA 원산지 증빙자료, 제조공정 자료,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이전가격 관련 자료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통관 프로세스 변화 모니터링 필요

집중통관 모델은 시범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 평가되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 절차나 요구서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법인 및 물류·통관 담당자는 세관 공지사항 및 시행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현지 관세사 및 물류업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결론

결정 702/QĐ-CHQ는 베트남 세관당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세관행정 개혁과 위험관리 중심 통관체계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통관업무 집중화, 전산시스템 활용 확대 및 위험관리 기반 검사체계 강화를 통해 통관 효율성과 관리 통제력을 동시에 높이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집중통관 모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수출입 기업의 통관 프로세스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 및 통관 컴플라이언스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우수 준수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것이 신속통관 혜택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여람 관세사 (국가공인 관세사)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전화: 024-3946-0511 (620)

메일: yeoram@kotra.or.kr





푸토 - PHU THO 성

자료원: 푸토성 투자촉진 및 기업지원센터

I. 기본정보

II. 투자 환경

1. 교통시스템

가. 도로

나. 수로

다. 철도

라. 항공

마.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 (ICD)

2. 관광 및 자연자원

III.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방향

1. 2030년까지 산업단지 개발 계획

2. 투자 인센티브 정책

3. 외국인 투자 현황

IV. 산업단지 현황

1. 운영 중인 산업단지 (총 17개)

2. 건설 중인 산업단지 (총 5개)

3. 운영 중인 산업클러스터 (2025년 9월 기준)

V. 유망 투자 분야

1. 고부가가치 산업

2. 상업 - 서비스 산업

3. 농림수산업

4. 관광산업

5. 교통 인프라

VI. 투자 유치기관 정보



I. 기본 정보

2025년 7월 1일부로 기존 푸토(Phú Thọ)성·빈푹(Vĩnh Phúc)성·호아빈(Hòa Bình)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푸토성이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면적-인구	면적: 9,361.38 km² 인구: : 400만 명 이상 도시 거주 비율: 30%
지정학적 위치	서북부 지역과 하노이·하이퐁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관문 • 성도 비엠티(Việt Trì) → 노이바이 국제공항: 약 60km (차량 약 60분) • 성도 비엠티 → 하노이 도심: 약 85km (차량 약 1시간 40분) • 통합 이후 전국 최다인 7개 성·시와 접경: 하노이(Hà Nội), 닌빈(Ninh Bình), 타인호아(Thanh Hoa), 선라(Sơn La), 라옌카이(Lào Cai), 뚜옌꽁(Tuyên Quang), 타이응우옌 (Thai Nguyên)
교통 시스템	• 국도 2호선, 노이바이–라옌카이 고속도로, 호아락–호아빈 고속도로 • 순환도로·광역도로·철도·수로 교통망 체계적 투자 중 • 라옌카이–하노이–하이퐁 철도 노선 업그레이드 추진 → 광역 물류체계 강화
GRDP 성장률 /1인당	• 2025년 GRDP 성장률: 10.52% (전년 대비) • 2025년 1인당 GRDP: 4,046달러 (2020년 대비 1.48배 증가) • 2020~2025년 평균 성장률: 7.5% (전국 평균 6.3% 상회) • 2025년 1~9월 GRDP 성장률: 10.22% (전국 4위)
경제 규모 산업별 성장률	수출액(2025년): US 368억 달러 (2020년 대비 2.2배 증가)
경제구조	제조업·건설업: 53% 서비스업: 33.8% 농림어업: 13.2%
인적자원	• 노동연령인구: 약 200만 명 (인구의 약 50%) • 직업교육 이수 비율: 약 73.3% • 자격증 소지 노동자 비율: 약 34.6%
최저임금	3개 임금 구역으로 구분 (2025년 11월 제293/2025/NĐ-CP호 시행령 기준): • 최저: 월 370만 동 (약 US \$142.3) / 시간당 17,800동 (약 US \$0.68) • 최고: 월 470만 동 (약 US \$182) / 시간당 22,700동 (약 US \$0.87) ※ 환율: US \$1 = 26,000동
외국인 투자 (2025년 8월 기준)	• 총 FDI: 730개 프로젝트 / 총 130억 달러 • 한국 투자: 384개 프로젝트 / 50억 달러 → 투자 27개국 중 투자금액·프로젝트 수 모두 1위

푸토성의 위치



푸토성의 위치

II. 투자 환경

1. 교통 시스템

가. 도로

총 연장 약 30,720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속도로 2개 노선 (노이바이-라오까이, 뚜옌꽁-푸토): 총 130km 이상
- 국도 16개 노선: 총 973km 이상
- 지방도·군도·농촌도로·도시도로·전용도로 연결망

나. 수로

내륙 수로 총 약 680km 보유:

- 중앙정부 관리 수로: 약 369km
- 지방정부 관리 수로: 약 311km

다. 철도

국가 간선철도 하노이-라오까이 노선이 푸토성을 약 113km 구간 통과합니다. 하노이 수도권과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 및 중국 윈난성(云南省)을 연결하며, 쿤밍-라오까이-옌바이-푸토-하이퐁 경제회랑의 핵심 물류 허브 역할이 기대됩니다.

라. 항공

푸토성 내 공항은 없으나, 인근 주요 공항 접근이 가능합니다:

- 노이바이 국제공항 (하노이): 약 60km, 약 1시간
- 깃비 공항 (하이퐁): 약 210km, 약 3시간
- 토쑤언 공항 (타인호아): 약 260km, 약 4시간

마.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현재 운영 중인 ICD:

- ICD 투이반(Thủy Vân): 농짱(Nong Trang) 지역, 면적 2.8ha – 수출입 통관 기능 수행
- ICD 하이린(Hải Linh): 타인미에우(Thanh Mieu) 지역, 면적 13.5ha

2050년까지 흐엉칸(Huong Canh)·럽탓(Lap Thach)·깜자(Cam Gia) 지역에 ICD 3개소 추가 개발 예정

빈푹 지역의 ICD 물류센터는 ASEAN 스마트 물류 네트워크 내 최초 '슈퍼 항만'으로, 쿤밍(중국)–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광닌 경제회랑의 국내외 화물 환적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관광 및 자연자원

통합 이후 푸토성은 문화유산·생태자원·산악 휴양지·소수민족 문화·교역 거점을 아우르는 종합 관광권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 지역	관광 특화 분야 및 주요 명소
푸토(구)	홍왕사원(Đền Hùng), 홍왕 제사 축제, 쏘안(Xoan) 민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빈푹	땀다오(Tam Đảo), 떠이티엔(Tây Thiên), 플라밍고 다이라이 리조트(세계 10대 아름다운 리조트 선정), 국제 규격 골프장
호아빈	마이쩌우(Mai Châu), 띠락(Tân Lạc), 다박(Đà Bắc) 공동체 문화관광 호아빈 호수, 김보이(Kim Bôi) 온천, 카르스트 동굴, 통나이(Thung Nai) 수상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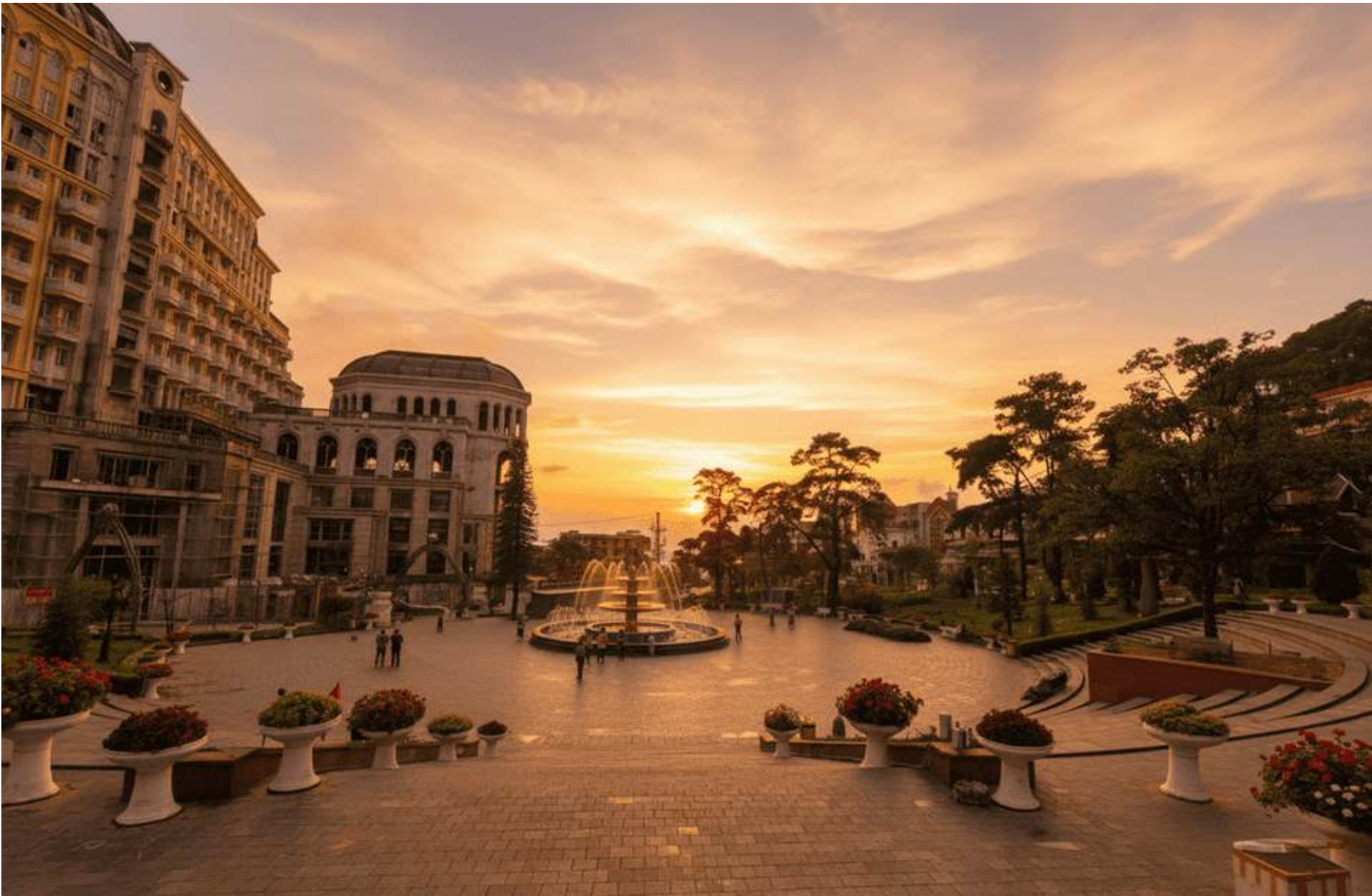
지역 특산품 연계 미식 관광: 푸토 차(茶), 까오푹 (Cao Phong) 오렌지, 다(Da) 강 민물고기, 땀다오(Tam Dao) 차요 테순(su su), 럽탓(Lap Thach) 붉은 용과 등



피닉스 골프 리조트 (베트남 피닉스 홈페이지 사진)



Den Thuong (홍왕사원 홈페이지 사진)



땀다오 광장 (구글 사진)



Flamingo Dai Lai 리조트 (홈페이지 사진)

Ⅲ.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방향

1. 2030 년 까지 산업단지 개발 계획

총리 승인 성(省) 개발계획(2021~2030, 2050 비전)에 따른 산업단지 현황 및 목표:

구분	지역	산업단지 수 (개)	계획 면적 (ha)
현황 (2025년 8월 기준)	푸토 (구)	4	1,280
	빈푹	17	3,143
	호아빈	7	1,410
	합계	28	5,833

구분	지역	산업단지 수 (개)	계획 면적 (ha)
2030년 목표	푸토 (구)	13	5,095
	빈푹	28	4,815
	호아빈	16	3,471
	합계	57	13,381

2. 투자 인센티브 정책

「2020년 투자법」 제15·16·17조 및 정부 시행령 제31/2021/NĐ-CP 제19·20·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인센티브 유형	주요 내용
법인세 우대	일반 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일정 기간 또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적용;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 부여
수입세 면제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 물품 면세; 생산용 원자재·자재·부품 수입세 면제
토지 관련 우대	토지사용료·토지임대료·토지사용세 면제 또는 감면
기타 세제 우대	가속상각 허용;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 인정 한도 확대

3. 외국인 투자 현황

2025년 8월 기준 누적 유효 FDI: 730개 프로젝트, 총 투자등록금액 약 130억 달러

국가·지역	등록 투자금액(USD)	프로젝트 수 (개)
한국	5,069,915,922	384
일본	2,068,652,717	77
대만	1,528,548,721	62
중국	1,456,094,666	103
기타 국가	2,887,646,087	104
합계	13,010,858,113	730

- 산업단지 내 FDI: 507개 프로젝트 / 약 99억 2,570만 달러
- 산업단지 외 FDI: 223개 프로젝트 / 약 30억 8,280만 달러

2025년 푸토성 주요 FDI 기업 현황

순번	기업명	투자국	통 투자금액 (USD)
1	Miwon Vietnam Co., Ltd.	한국	200,000,000
2	Honda Vietnam Co., Ltd.	일본	350,000,000
3	Toyota Boshoku Hanoi Co., Ltd.	일본	150,000,000
4	Yakjin Intertex Co., Ltd.	한국	50,000,000
5	Vina Korea Co., Ltd.	한국	30,000,000
6	Namuga Phu Tho Technology Co., Ltd.	한국	100,000,000
7	Intops Vietnam Co., Ltd.	한국	70,000,000
8	KSA Polymer Co., Ltd.	한국	20,000,000
9	Sangwoo Vietnam Co., Ltd.	한국	40,000,000
10	Haesung Vina Co., Ltd.	한국	60,000,000
11	JNTC Vina Co., Ltd.	한국	120,000,000
12	PowerLogics Vina Technology Co., Ltd.	한국	80,000,000
13	Yupoong Vietnam Co., Ltd.	한국	90,000,000
14	Daewoo Apparel Co., Ltd.	한국	45,000,000
15	Jijin Display Vina Co., Ltd.	한국	150,000,000
16	Sejin Vietnam Co., Ltd.	한국	25,000,000
17	TAEKWANG Vina Co., Ltd.	한국	60,000,000
18	Golden Victory Vietnam Co., Ltd.	대만	80,000,000
19	Luxshare ICT Co., Ltd.	중국	100,000,000
20	Goertek Vina Co., Ltd.	중국	110,000,000
21	BYD Electronics Vietnam Co., Ltd.	중국	95,000,000
22	Foxconn Technology Co., Ltd.	대만	200,000,000
23	Jinko Solar Vietnam Co., Ltd.	중국	150,000,000

IV. 산업단지 현황

1. 운영 중인 산업단지 (총 17개)

현재 푸토성에는 총 17개 산업단지가 운영 중입니다: 푸토(구) 지역 4개, 빈푹 지역 10개, 호아빈 지역 3개.



산업단지 명	면적 (ha)	임대 현황 및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투이반 (Thụy Vân)	335	임대 완료	산업단지 인프라·서비스 개발센터
푸하 (Phú Hà)	356.29	- 임대 가능 면적: 97.30ha - 토지임대료(인프라 포함): 100USD/m² (50년) - 관리비: 0.70USD/m²/년 폐수처리비: 0.41USD/m³ - 유치 업종: 첨단산업, 지원산업, 소비재 제조업	Viglacera 총공사 (JSC)
쭙하 I (Trung Hà I)	138.7	임대 완료	산업단지 인프라·서비스 개발센터
껌케 (Cẩm Khê)	450	- 임대 가능 면적: 160ha - 토지임대료: 90USD/m² (50년) - 관리비: 0.70USD/m²/년 폐수처리비: 0.46USD/m³ - 유치 업종: 제조·가공, 에너지, 물류, 부동산, 과학기술 서비스	Ao Vua JSC + Đức Anh 건설 JSC 컨소시엄
김호아 (Kim Hoa)	50	임대 완료	IDICO 도시·산업단지 개발회사
카이꽁 (Khai Quang)	221.46	임대 완료	빈푹 인프라개발 JSC
빈쑤옌 (Bình Xuyên)	286.98	임대 완료	An Thinh Vinh Phuc 투자건설 유한회사
바티옌 (Ba Thiên)	325.75	- 임대 가능 면적: 30ha - 토지임대료: 170~180USD/m² (50년) - 관리비: 0.4USD/m²/년 폐수처리비: 0.45USD/m³ - 우선 유치: 노트북, LCD, 프로젝터, 네트워크 장비 등 첨단 전자·IT	HDTC 주택개발투자 JSC
빈쑤옌 II 1단계	42.21	임대 완료	Fuchuan 유한회사
바티옌 II (Ba Thiên II)	308.83	- 임대 가능 면적: 4.5ha - 토지임대료: 140~165USD/m² (50년) - 관리비: 0.4USD/m²/년 폐수처리비: 0.4USD/m³ - 우선 유치: 전자·통신·광학 장비 제조 및 소프트웨어 산업	Vina-CPK JSC
땀즈엉 II A구역 (Tam Dương II-A)	135.17	임대 완료	VITTO-VP 유한회사

산업단지 명	면적 (ha)	임대 현황 및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타이호아-리엔선- 리엔호아(KVII-1단계)	145.27	• 임대 가능 면적: 35ha • 토지임대료: 110~120USD/m² (50년) • 관리비: 0.4USD/m²/년 폐수처리비: 0.4USD/m³ • 우선 유치: 건축자재, 정밀기계, 소비재, 섬유·봉제, 신발	Amane 투자 JSC
선로이 (Sơn Lợi)	246.65	정보 업데이트 중	An Thinh Vinh Phuc 투자건설 유한회사
탕롱 빈푹 (Thăng Long Vĩnh Phúc)	213	임대 완료	Thang Long Vinh Phuc 산업단지 유한회사
다강 좌안	68.37	임대 완료	Da Hop 무역 JSC
르엉선 (Lương Sơn)	83.08	임대 완료	An Thinh Hoa Binh 부동산 JSC
빈푸 (Bình Phú)	214.29	• 2026년 1분기부터 약 20ha 임대 가능 예정 • 우선 유치: 첨단기술, 친환경 산업, 전자·제조업, 섬유·신발·목재가공·지원산업	Binh Phu Invest 유한회사

2. 건설 중인 산업단지 (총 5개)

현재 빈푹 지역 3개, 호아빈 지역 2개가 건설 중입니다.

산업단지 명	면적 (ha)	임대 현황 및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맘즈엉 I-구역2 (Tam Dương I-KV2)	156.76	• 임대 가능 면적: 20ha • 토지임대료(인프라 포함): 130~135USD/m² (50년) • 관리비: 0.6USD/m²/년 폐수처리비: 0.5USD/m³ • 우선 유치: 지원산업, 자동차 부품·소재·반제품 생산 및 조립	Son Ha International JSC
로강 II (Sông Lô II)	165.66	• 임대 가능 면적: 31ha • 토지임대료: 100~110USD/m² (50년) • 관리비: 0.4USD/m²/년 폐수처리비: 0.4USD/m³ • 우선 유치: 자동차·오토바이용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기계, 전자·가전 제조	빈푹 인프라개발 JSC

산업단지 명	면적 (ha)	임대 현황 및 주요 정보	인프라 개발사
남빈쑤옌 (Nam Bình Xuyên)	-	정보 업데이트 중	Nam Binh Xuyen Green Park 유한회사
누옌짜(푸선 산업단지) (Nhuận Trạch)	213.68	• 2026년 1분기부터 약 50ha 임대 가능 예정 • 우선 유치: 첨단기술, 친환경 산업, 제조·전자 산업, 섬유·신발·광물가공·건축자재·목재가공·지원산업	Hoa Phu – Hoa Binh 유한회사
옌광 (Yên Quang)	180.62	• 임대 가능 면적: 26.71ha • 토지임대료: 100~120USD/m ² (50년) • 관리비: 0.3~0.5USD/m ² /년 폐수처리비: 0.46USD/m ³ • 우선 유치: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전자·제조 산업, 섬유·신발·광물가공·건축자재·목재가공·지원산업	An Viet Hoa Binh JSC

3. 운영 중인 산업 클러스터 (2025년 9월 기준)

총 67개 산업 클러스터 (총 면적 3,108.56ha) 설립 완료. 이 중 35개 운영 중이며, 930개 2차 투자 프로젝트 유치 및 37,000명 이상 고용 창출.

클러스터명	면적 (ha)	입주율 (%)	현황	인프라 투자·운영 주체
동속(Đồng Sóc)	75	92	사업 완료	Vinh Phuc 투자무역 유한회사
리년(Lý Nhân)	10	38.58	보상·부지정리 및 기반시설 투자 진행 중	VHL News JSC
떼로(Tề Lỗ) 전통공예	25.03	99.9	사업 완료	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 개발관리위원회
옌동(Yên Đồng) 전통공예	8.7	100	사업 완료	옌동 지역 산업클러스터 개발관리위원회
민프엉(Minh Phương) 전통공예	34	10.89	국가 인도 부지 기준 기반시설 투자 완료	KEHIN JSC
동반(Đồng Văn)	24.17	40	기반시설 투자 진행 중	Quang Loi 회사
동틴(Đồng Thịnh)	28.4	29.2	부지정리 및 기반시설 투자 진행 중	Song Lo 인프라투자 JSC
흥브엉–폭탕(Hùng Vương–Phúc Thắng)	10	100	사업 완료 (Toyota Vietnam 투자)	Toyota Vietnam
옌락(Yên Lạc) 타운	5.18	100	대부분 완료	Yen Lac - Thang Long 건설투자 JSC
헝틴(Hợp Thịnh)	48.43	16	기반시설 투자 진행 중	CNC Technology Solutions JSC 외 컨소시엄



클러스터명	면적 (ha)	입주율 (%)	현황	인프라 투자·운영 주체
남타인바(Nam Thanh Ba)	37	91.13	기반시설 대부분 완료 (교통 일부 미완)	지역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
협하이–끼께(Hợp Hải–Kinh Kệ)	40	100	기반시설 완료	Phung Nguyen 지역 인프라개발센터
옌럽(Yên Lập) 타운	40	74	기반시설 일부 미완성	Yen Lap 산업클러스터 개발센터
르엉선(Lương Sơn)	75	20	관리동·조경 미완성	Yen Lap 산업클러스터 개발센터
떤푸(Tân Phú)	75	24	투자 진행 중	공공시설 개발센터 및 기업 공동 투자
타오(Thao)강	45	100	기반시설 투자 완료	Cam Khe 지역정부 및 Phuong Thanh 회사
속당(Sóc Đăng)	32.99	40	일부 기반시설 완료, 추가 공사 진행 중	Doan Hung 지역정부 및 Vertexco Soc Dang
박학(Bạch Hạc)	79	100	주요 건설 완료	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꼬띠엣(Cổ Tiết)	73	100	완료	Van Xuan 지역정부
바이바–동타인(Bãi Ba–Đồng Thanh)	75	67.3	기반시설 완료 (총 투자금 5,200억 동)	Tu Lap 건설 유한회사
타인민(Thanh Minh)	25	100	기반시설 완료	Phu Tho 건설컨설팅 JSC
박럼타오(Bắc Lâm Thao)	43	25.34	주요 공사 완료	GiZa Vietnam 설계·건설 JSC
반쑤언(Văn Xuân)	64	56.47	기반시설 대부분 완료	Lan Hue 무역서비스 유한회사
뜨다–안다오(Tứ Xã–An Đạo)	63	84.2	기반시설 완료	Vietnam-Korea 유한회사
푸자(Phú Gia)	40	51.8	내부도로·전기·수도·배수 구축 완료	Phu Gia 투자건설 유한회사
호앙싸(Hoàng Xá)	37	91.2	1·2단계 대부분 완료	Thanh Cong 건설투자 유한회사
동랑(Đồng Lãng)	36	100	기반시설 완료	Dong Lang 인프라개발-Tasco
특루옌(Thục Luyện)	75	16.4	부지정리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진행 중	Hung Manh 목재생산무역 유한회사
띠옌띠옌(Tiên Tiến)	63	65.61	시공 및 부지정리 진행 중	Da Hop 무역 JSC
동땀(Đồng Tâm)	73.97	30.18	사업 추진 절차 진행 중	HDT 서비스·건설 유한회사
푸타인 II(Phú Thành II)	75	86.84	운영 중	An Nghia 토지개발·산업클러스터센터
타인농(Thanh Nộ)	35.12	52.24	운영 중	An Nghia 토지개발·산업클러스터센터
솜룻(Xóm Rút)	74.5	3.47	초기 단계	Tan Vinh 산업인프라 투자 JSC
동라이–타인호이 (Đồng Lài–Thanh Hối)	42.89	48.45	운영 중	Tan Lac 지역정부

V. 유망 투자 분야

1. 고부가가치 산업

푸토성은 친환경·지속가능형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공급망(GVC)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장-타이응우옌-푸토 북부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 가공·제조업	• 농기계 산업
• 전자·반도체 산업	• 의료기기·의료장비 산업
• IT 산업	• 첨단 식품가공 산업
• 첨단 기계·조립 산업	

2. 상업·서비스 산업

고급 소비·관광 수요 확대에 맞춰 서비스 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 중·고급 유통·리테일 산업	• 물류·창고 및 내륙항(ICD) 개발
• 리조트·엔터테인먼트 관광	• 복합 쇼핑몰 및 현대식 상업시설
• 교육·의료 서비스	• 석유·가스 저장 및 물류 인프라

3. 농림수산업

친환경·첨단 농업 중심의 투자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 유기농·순환농업	• 가치사슬 기반 농업 개발
• 스마트농업 및 첨단농업	• 기후변화 대응형 지속가능 농업

4. 관광 산업

문화·생태·휴양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며 주요 관광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개발 지역	중점 투자 분야
• 홍왕사원(Đền Hùng) • 땀다오(Tam Đảo) • 쑤언선(Xuân Sơn) 국립공원 • 호아빈 호수·마이쩌우(Mai Châu) • 다이라이(Đại Lải) 관광권	• 웰니스·휴양 관광 • 생태·문화 체험 관광 • MICE 관광 • 수상관광 및 골프장 개발



Thanh Lan 골프 (타잉라인 골프 홈페이지 사진)

5. 교통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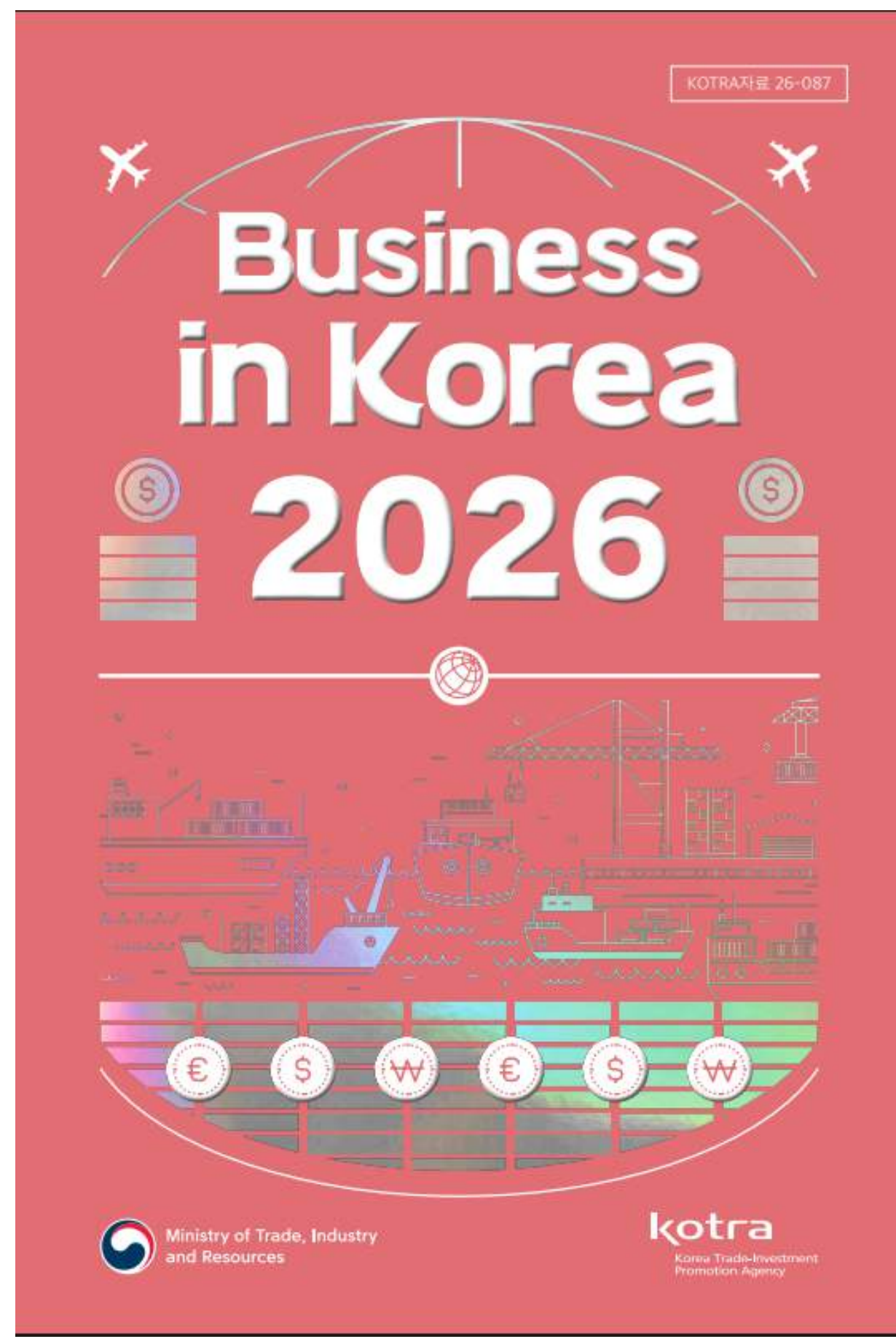
북부 핵심 물류·교통 허브 구축을 위해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라오까이–하노이–하이퐁 철도 사업
- 서부 북남고속도로 및 수도권 순환도로 5호선
- 호아락–호아빈, 호아빈–목쩌우 고속도로
- 주요 국도(QL2, QL32, QL70 등) 확장 사업
- 노이바이 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 하노이–빈옌–땀다오 등 도시철도 노선 검토 중

Ⅵ. 투자 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본사 주소	연락처
푸토성 투자촉진 및 기업지원센터	푸토성 빈푹(Vĩnh Phúc)동 응우옌짜이 (Nguyễn Trãi) 38번지	• Tel: +84-21-1389-2999 • Email: tttdthtdnvp@gmail.com
푸토 지역 대표사무소	푸토성 비엠티(Việt Trì)동 쩌꾸(Trần Phú)로 388번지	• Tel: +84-981-387-668
호아빈 지역 대표사무소	푸토성 호아빈(Hòa Bình)동 쩌흥다오 (Trần Hưng Đạo)로 493번지	• Tel: +84-21-8388-1234

Business In Korea 2026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Main Summary
2. Procedure
3. Incentive
4. Practice
5. Appendix

한눈에 보는 바이오헬스 스위스 진출 가이드 A-Z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스위스 바이오헬스 시장 개요(의약품, 의료기기)
2. 스위스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 F&Q
3. 스위스 주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및 기업 협력 수요
4. 스위스 시장 진출 수요 및 시사점(설문조사)
5.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 스위스 진출 사례

2026 베트남 호치민 홈& 하드웨어 전시회

전시회명	2026 Vietnam Home & Hardware Show
개요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홈&하드웨어 전시회'는 글로벌 소비재 기술·제품 B2B 플랫폼으로, K-콘텐츠 수요가 높은 현지 판로 개척의 최적기로 평가받는다. 2025년 기준 10개국 257개사(412부스)가 참가한 본 전시회는 1:1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리셉션, 제품 설명회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특전을 제공한다. 특히 1년간의 온라인 홍보 지원과 함께 KOTRA 및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해 우리 기업의 진출 부담을 낮추고 마케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전시회는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핵심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최기간	2026.06.24 - 2026.06.26
개최장소	SECC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주최기관	Uninet(싱가포르)
주관	Eims(베트남), BEXCO(한국)
개최규모	8800sqm(m ²)
산업분야	생활용품&가구, 국가종합전시회
전시품목	리빙, 홈케어, 홈제어, 조명, 소형기기, 공구류, 보안, 기프트, 소비재
담당자	이원규 대리 / 051-740-7545 / leewg@bexco.co.kr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구분	1988. 01. 01~2026. 4. 30 기준 누계		2026. 01. 01 ~ 4. 30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469	99,390.30	129	4,085.10	4,819.66
싱가포르	4,545	96,668.42	166	6,088.48	7,477.19
일 본	5,778	79,296.21	82	484.95	617.77
대 만	3,457	42,372.43	48	72.42	128.47
홍 콩	3,337	40,758.96	128	335.74	1,155.94
중 국	6,725	35,871.64	426	578.37	1,085.87
버진아일랜드(영)	944	25,043.34	6	8.32	32.60
태국	805	15,406.76	12	7.94	132.12
네덜란드	474	15,342.28	13	318.49	526.95
말레이시아	800	14,819.02	16	3.87	38.63
미국	1,556	12,418.00	49	92.71	119.02
기 타	7,644	65,772.47	214	202.13	2,593.93
전체 합계	46,534	543,159.83	1,289	12,278.52	18,728.15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6. 4. 30 기준 누계		2026. 01. 01 ~ 4. 3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9,334	334,760.47	294	8,161.66	11,010.13
2	부동산 경영	1,340	80,680.44	25	801.66	1,303.04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207	44,945.94	4	2,306.90	2,405.90
4	호텔, 외식서비스	1,113	13,332.38	26	1.87	24.88
5	건설	9,805	12,885.57	552	118.23	2,056.81
6	도소매, 유지보수	1,909	10,777.54	34	36.87	64.01
7	물류 운수	1,353	7,423.14	40	98.70	152.59
8	과학기술, 전문 활동	5,313	6,640.63	189	79.77	601.28
9	정보통신	3,319	5,921.46	66	639.29	733.67
10	채광	109	4,970.93	1	0.19	0.31
11	교육, 양성	731	4,805.76	12	3.02	5.63
12	농,임,수산	541	3,929.81	2	3.04	13.96
13	예술 오락	87	3,847.48	-	-	220.55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159	3,171.55	5	1.01	2.11
15	의료와 사회복지	157	1,849.67	1	0.20	3.76
16	행정, 지원 서비스	777	1,305.41	33	25.72	34.11
17	금융, 은행, 보험	169	962.17	4	0.30	26.72
18	기타 서비스	105	938.85	1	0.07	68.69
19	가구내 고용 활동	6	10.64	-	-	-
합 계		46,534	543,159.83	1,289	12,278.52	18,728.15

자료원 : 베트남 재무부 산하 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수 출	3,546	4,055	4,750	45.99(-1.0)	169.01(+20.4)
수 입	3,263	3,807	4,550	49.98(+6.1)	176.66(+29.4)
무역수지	280	247	200	-3.99	-7.6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전자제품 및 부품	57,336	72,584	107,748	12,032(-7.7)	42,761(+46.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2,379	53,891	56,709	4,552(-18.7)	21,283(+19.6)
기계장비 및 부품	43,128	52,191	59,046	5,936(+4.1)	20,927(+22.4)
섬유/직물제품	33,329	37,036	39,641	3,081(-2.3)	11,932(+1.3)
신발류	20,237	22,871	24,203	2,215(+13.5)	7,632(+0.3)
운송수단 및 부품	14,157	15,066	17,529	1,752(+7.2)	6,256(+16.0)
목재 및 목제품	13,467	16,282	17,204	1,576(+12.4)	5,572(+3.2)
수산물	8,971	10,040	11,285	1,011(+9.3)	3,650(+13.7)
섬유원사(Yarn)	4,355	4,407	4,314	398(-8.9)	1,475(+5.8)
철강으로 만든 제품	3,973	4,594	5,473	497(-1.8)	1,831(-1.4)
기 타	103,339	116,569	131,907	12,936	45,695
합 계	354,671	405,531	475,059	45,986	169,01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3	2024	2025.12	2026.4	2026(누계)
전자제품 및 부품	87,965	107,053	150,696(+40.7)	18,762(+6.0)	66,341(+54.8)
기계장비 및 부품	41,579	48,887	61,026(+24.8)	5,928(+6.9)	21,391(+21.8)
원단	13,016	14,905	15,198(+1.9)	1,462(+35.0)	4,853(-0.3)
각종 철강	10,425	12,583	11,212(-10.9)	1,008(+13.0)	3,612(+0.5)
플라스틱 원료	9,755	11,780	12,531(+6.3)	1,247(+0.6)	4,365(+6.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749	10,403	11,258(+8.2)	733(+0.1)	3,022(-11.5)
화학물질	7,726	8,286	8,113(+4.8)	990(+10.0)	3,184(+23.5)
기타 비금속	7,626	9,554	11,373(+18.9)	1,288(+0.7)	4,582(+29.0)
화학제품	7,605	7,735	10,870(+22.8)	805(+2.9)	2,840(+15.0)
플라스틱 제품	7,508	8,853	9,781(+21.9)	1,026(+9.1)	3,704(+20.1)
기 타	124,419	140,724	153,948	16,730	58,768
합 계	326,373	380,763	455,006	49,979	176,66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1	미 국	109,388	97,020	119,501	153,178	15,075	54,037
2	중 국	57,702	61,207	61,211	70,453	6,147	23,023
3	한 국	24,293	23,498	25,619	28,943	2,567	10,756
4	일 본	24,232	23,314	24,608	26,766	2,449	9,527
5	홍 콩	10,936	9,631	12,423	17,557	1,863	6,781
6	네덜란드	10,430	10,241	12,993	13,478	1,422	5,097
7	독 일	8,968	7,400	7,934	9,533	934	3,634
8	인 도	7,961	8,498	9,064	10,351	966	3,926
9	태 국	7,476	7,192	7,782	8,796	1,086	3,759
10	영 국	6,065	6,345	7,543	8,392	700	2,821
	기 타	103,853	100,325	116,853	127,612	12,777	45,653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475,059	45,986	169,01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2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1	중 국	117,866	110,644	114,020	186,034	20,209	70,262
2	한 국	62,088	52,511	55,925	60,544	7,528	26,315
3	대 만	22,631	18,421	22,741	33,026	3,924	14,021
4	일 본	23,373	21,638	21,588	24,677	2,328	8,979
5	미 국	14,470	13,822	15,102	19,287	1,886	7,029
6	태 국	14,092	11,797	12,447	13,281	1,172	4,835
7	오스트레일리아	10,144	8,533	7,592	7,189	855	2,777
8	말레이시아	9,124	7,809	9,133	11,004	1,702	4,862
9	인도네시아	9,641	8,728	10,527	11,519	1,056	4,064
10	인 도	7,086	5,864	5,829	6,112	815	2,706
	기 타	68,386	66,606	105,859	82,333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455,006	49,979	176,662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수 출	60,972(+7.5)	53,479(-12.3)	58,321(+9.1)	62,775(+7.6)	7,937(+64.1)	27,416(+44.6)
수 입	26,726(+11.5)	25,941(-2.9)	28,440(+9.6)	31,774(+11.7)	3,005(+20.4)	12,203(+22.9)
무역수지	34,246	27,550	29,880	31,000	4,932	15,213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반도체	16,240(15.8)	12,729(-21.6)	18,039(+41.7)	24,656(+36.6)	4,283(+147.1)	14,054(+96.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527(4.0)	12,350(-1.4)	11,227(-9.1)	10,325(-8.0)	801(+12.6)	3,277(+15.2)
석유제품	3,733(222.3)	3,327(-10.8)	2,731(-17.7)	2,156(-21.1)	406(+234.2)	1,328(+112.6)
무선통신기기	2,581(6.9)	2,001(-22.5)	2,333(+16.8)	2,174(-6.9)	194(-7.0)	678(-8.9)
합성수지	2,358(-29.2)	2,166(-8.1)	2,511(+15.9)	2,253(-10.3)	167(-18.0)	707(-11.4)
기구 부품	2,194(-8.8)	1,861(-15.1)	1,772(-4.8)	1,814(+2.3)	144(+0.7)	587(+4.0)
플라스틱 제품	1,069(-15.6)	887(-17.0)	994(+12.0)	1,127(+13.4)	78(+6.6)	300(-5.3)
철강판	1,067(-9.2)	1,021(-4.2)	1,055(+3.4)	1,081(+2.4)	99(+6.9)	358(+5.8)
기타기계류	815(13.6)	734(-9.9)	593(-19.1)	623(+5.0)	43(-18.8)	175(+2.0)
계측제어분석기	793(-17.1)	801(+1.0)	664(-17.0)	675(+1.4)	101(+62.6)	284(+48.3)
기타	17,242	15,612	16,402	15,883	1,621	5,668
합 계	60,972(+7.5)	53,489(-12.3)	58,321(+9.1)	62,767(+7.6)	7,937(+64.1)	27,416(+44.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	2026.4	2026(누계)
무선통신기기	5,986(7.3)	4,543(-24.1)	4,678(+3.0)	4,911(+5.0)	436(+34.5)	2,439(+82.0)
의류	3,840(13.2)	3,542(-7.7)	3,593(+1.4)	3,325(-7.5)	256(-5.9)	1,112(-9.7)
컴퓨터	1,948(19.1)	2,075(+6.6)	2,383(+14.9)	2,988(+25.3)	338(+65.5)	1,358(+39.5)
반도체	1,250(27.2)	1,252(+0.1)	1,221(-2.5)	1,160(-5.0)	89(-12.8)	376(-10.5)
산업용 전기기기	970(33.8)	1,396(+44.0)	1,699(+21.7)	2,029(+19.4)	214(+20.5)	759(+24.0)
신변잡화	942(24.8)	722(-23.3)	681(-5.7)	579(-15.1)	50(-9.8)	166(-24.3)
목재류	787(5.0)	2,053(+160.9)	2,976(+45.0)	5,080(+70.7)	489(+40.1)	2,020(+47.7)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83(-10.5)	657(-15.9)	598(-9.1)	683(+14.2)	96(+115.4)	266(+41.8)
기구부품	654(4.8)	571(-12.7)	654(-14.6)	763(+16.5)	72(+19.5)	276(+21.3)
영상기기	441(3.6)	409(-7.2)	414(+1.2)	406(-2.0)	37(-1.1)	128(-0.9)
기 타	9,103	8,718	9,543	9,850	928	3,303
합 계	26,726(11.5)	25,938(-2.9)	28,440(+9.6)	31,774(+11.7)	3,005(+20.4)	12,203(+22.9)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아세안지역 거시동향 지표



2025~2026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5년(연간)	%	8.02	5.11	4.8	5.1	2.4	4.4
		2025년 4Q	%	8.46	5.39	5.7	6.3	2.5	3.0
		2026년 1Q	%	7.83	5.61	4.6	5.3	2.8	2.8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9.2	160.3	N/A	136.9	97.18	1.2
		2026년 2월	-	0.6	N/A	85.9	130.3	97.83	2.8
		2026년 3월	-	7.2	N/A	106.6	142.4	108.69	△2.6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5년(연간)	-	53.0	N/A	N/A	49.5	52.7	50.5
		2026년 2월	-	54.3	53.8	50.6	49.3	53.5	54.6
		2026년 3월	-	51.2	50.1	50.5	50.7	54.1	51.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5년(연간)	-	N/A	N/A	100.9	136.0	N/A	N/A
		2026년 2월	-	N/A	125.2	101.9	N/A	N/A	N/A
		2026년 3월	-	N/A	122.9	102.4	N/A	N/A	N/A
	소매판매	2025년(연간)	-	9.2	N/A	100.0	187.2	29.08	1.2
		2026년 2월	-	8.5	6.5	96.7	191.2	20.04	2.1
		2026년 3월	-	12.1	3.4	107.2	196.2	N/A	4.8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5년(연간)	%	3.31	N/A	0.9	1.4	N/A	1.8
		2026년 2월	%	3.35	4.76	1.2	1.4	N/A	2.4
		2026년 3월	%	4.65	3.48	1.8	1.7	N/A	4.1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5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6년 2월	%	60.3	N/A	N/A	N/A	N/A	N/A
		2026년 3월	%	65.9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5년(연간)	%	N/A	N/A	2.0	3.0	0.82	4.2
		2025년 4Q	%	2.22	N/A	2.0	2.9	0.71	4.6
		2026년 1Q	%	2.21	N/A	2.0	2.9	0.91	5.3
무역	수출증가율	2025년(연간)	%	17.0	6.15	9.6	6.5	12.93	12.4
		2026년 2월	%	6.0	1.01	11.0	10.8	9.87	8.0
		2026년 3월	%	40.3	△3.10	41.2	8.3	18.67	20.4
	수입증가율	2025년(연간)	%	13.6	2.83	7.7	6.2	12.90	5.0
		2026년 2월	%	10.8	△1.45	16.6	8.2	31.80	12.6
		2026년 3월	%	10.1	1.51	35.5	10.4	35.73	12.3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전망치는 *표시

「SEOUL FOOD To-Go in 호치민」 사업계획(안)

'26. 5. 22(금), 호치민 무역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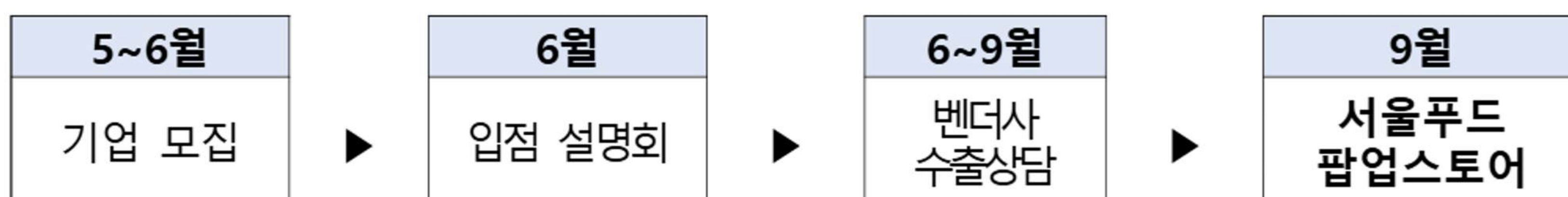
KOTRA 호치민무역관에서는 K-푸드의 동남아 유통 핵심 시장인 베트남 유통망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 사업은 베트남 내 주요 K-푸드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국내 식품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지 시장 반응 확인 및 유통망 입점 가능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SEOUL FOOD To-Go in 호치민
- (지원대상) SEOUL FOOD 전시회 참가기업 및 내수·수출초보 식품기업
- (기간/장소) 2026년 5월 ~ 9월 / 호치민 및 온라인
- (참가비용) 무료 (단, 샘플 제공, 수출통관, 운송비용은 국내기업이 부담)
- (사업내용) 팝업스토어 개최 및 수출마케팅 (유통망 입점 설명회, 수출상담, 판촉)

- ① 유통망 입점 설명회^{온라인} : 현지 유통망 담당자 초청, 입점 전략 및 방법 등 안내
- ② 수출 상담^{온라인} : 소비재 협업 벤더와 국내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시장성 평가)
- ③ 팝업스토어^{오프라인} : **현지 대형 쇼핑몰(파크몰) 연계 팝업스토어 개최 (제품 테스트 마케팅)**
 - 1) 팝업스토어 대상 기업 및 제품은 벤더사 매칭 후 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별하여 진행
 - 2) 팝업스토어 방식 : 수입벤더가 국내기업 제품을 수입하고, 벤더사가 현장 판매

[SEOUL FOOD To-Go in 호치민 사업 프로세스]



원문 링크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Phone: +84-24-3946-0511 / Email: hanjisoo@kotra.or.kr <저작권자 KOTRA>